



즉시 배포용: 2017 년 2 월 27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농지 평가 상한제(AGRICULTURAL ASSESSMENT CAP)로 뉴욕주 농민들을 위해 3,600 만 달러를 경감했음을 발표

이번 경감은 뉴욕주 농민들을 위한 경감액의 3 년 통합 액수를 반영

농지 평가 신청 마감일은 3 월 1 일. [이곳](#)에서 추가 정보 확인

Andrew M. Cuomo 는 오늘, 농지 평가 상한선(Agricultural Assessment Cap) 시행 초기 3 년 동안 주 전역의 농부들을 위해 3,600 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. 2013 년, Cuomo 주지사는 농지 평가가 연간 2%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데 [서명](#)했습니다. 기존 상한제는 10%로 설정되었습니다. 평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, 농민들은 좀 더 예측 가능한 세금 환경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계획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농업은 뉴욕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, 우리는 농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과 세금을 통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상한제로 인한 경감으로 우리의 농부들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, 미래 세대를 위해 농지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
이 상한제가 시행된 첫해, 농부들은 총 1,100 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. 2016 년, 연간 총 경감액은 1,330 만 달러로, 전년 대비 100 만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. 2017 년, 조세재무부(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)는 보다 대규모의 경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

2013 년 이후 농지 평가 상한제로 인한 지역 경감액	
주도 지역	\$4,390,225
센트럴 뉴욕	\$2,755,720
핑거 레이크스	\$9,711,784

롱아일랜드	\$3,625,731
미드 허드슨	\$8,773,829
모호크 밸리	\$1,018,714
노스 컨트리	\$1,136,150
서던 티어	\$3,293,222
웨스턴 뉴욕	\$1,935,453
합계	\$36,640,827

뉴욕주 토지의 20% 이상인 730 만 에이커가 경작에 사용됩니다. 농지 평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소유주는 해당 지역의 농지 평가자에게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농장 대부분의 신청 마감일은 2017년 3월 1일입니다. 이 시한은 개별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원서, 지침 및 자격 요건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[이곳](#)을 참조하세요.

농업부 커미셔너(Agriculture Commissioner) Richard A. Ba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급증하는 재산세를 억제하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으로, 뉴욕 농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비용을 줄여 사업에 재투자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미래를 예상해 볼 때, 예상치 못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농부들에게 농지 평가를 신청하길 권고합니다.”

조세 및 재정부 집행 커미셔너(Acting 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) Nonie Mani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뉴욕주 농산업을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은 독보적이며, 농부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노력이 그 증거입니다. 이번 절감으로 농민들은 커뮤니티 전역의 긍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, 토지 및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
New York Farm Bureau 대표 David Fish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농지 평가 상한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회원에게 있어 재산세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. 이는 주 전역의 농부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. 이번 상한제는 늘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, 특히 개발 압력에 직면한 지역의 농장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”

상원 농업 위원회(Senate Agriculture Committee) 의장 Patty Ritchi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최근 몇 년 동안, 농지 평가 상한제는 비용을 통제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근면한 농부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. 재산세는 농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며, 제가 자랑스럽게 지원하는 이번 상한제로 농부들이 그들의 땅에 머무를 수 있고, 언젠가는 그들의 농장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으며, 미래 뉴욕주 농업을 성장시키고 보존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
의회 농업 위원회(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) 의장이자 주 의회 의원인 Bill Mage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치솟는 농지 평가를 2%로 상한함으로써, 우리는 뉴욕주 농부들의 과도한 사업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었고, 농장의 성장 및 확장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,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.”

2011년,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재산세 상한제 2%를 적용했습니다. 이번 세금 상한제는 기업 및 주택 소유주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으로 추진된 일련의 세금 감면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. 이번 상한제의 결과로, 재산 납세자는 평균 \$8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 올해 보통 납세자는 지방 재산세 \$2,100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